

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해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사
서울시 중로구 관철동 43-8 대한방직B/D 3층 902호
전화 : 代 (02) 733-3900

15일 오후 4시30분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 8살 배기 어린이가 한 가게 여주인의 차마를 잡고 "봉사! 봉사!"하고 외치며 다닌다. 여주인은 어린이와 함께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이 가게 저 가게에서 각종 야채를 받아낸다.
 일요일을 뺀 매일 오후 4시경에 벌어지는 이 광경은 가락시장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강중남(43) 보살과 이웃 가게 아기 신준섭(6) 어린이가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 노인복지시설에 보낼 야채를 모으는 모습. 강보살은 저녁 7시가 되면 모든 야채를 이웃 가게집 용달차에 싣고 성남 자광원으로 달려간다. 자광원에 도착하면 노인들은 머리를 빗는 양 반갑게 두 손을 잡는다. 감자 두부 상차와 마늘 오이 호박 깎고 고춧가루 등 다양한 부식거리가 천막 식탁으로 옮겨진다.
 강보살과 남편 이효태(56) 거사가 올해초부터 변갈아 가져오는 야채를 농산물은 이웃 노인

들의 주요 먹거리. IMF 관리체제 이후 폭 떨어진 후원금 때문에 환경계 운영되는 자광원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언덕이다.
 외동아들 은학군(16·휘문고 2년)도 부모님의 보살행을 옆에서 보다가 몇달전부터 매주 토요일 친구들과 함께 자광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나가고 있다.
 "머칠 전 아들과 함께 할머니들을 찾았을 때 비닐봉지에 모아둔 사랑을 간내주시더군요. 가진 것 없는 노인들의 작지만 큰 사랑을 보고 울었어요." 부인과 함께 어린이집에 부모를 잃은 이효태 거사는 이들을 친부모처럼 모시고 있다.
 새벽 4시에 나갔다가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고된 직장일. 남보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기에 IMF관과도 비껴간다.
 강보살 가족은 오늘도 리어카에 '보살행'의 열매를 담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이 한 민족 불교 중흥회
한민족불교중흥회가 조계사 맞은편(건지동 가락)으로 이전하였음을 사부대중께 알려드립니다.
 ▼오시는 길
 서울역 → 한민족불교중흥회 (전) → 한민족불교중흥회 (신)
 ● 대전주소: 불교역사관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74-9
 TEL: 720-1655
 FAX: 720-1657(경음)
 ▲ 간에 주저할 필요 없이 있습니다.
 ▲ 모든예의 유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농지소유 '제동'

법제처 "시행규칙 개정불가" 심사 제외
조계종 "대통령 공약 이행"...개정 다각 모색

전통사찰이 사찰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림부가 개정하려는 '농지법시행규칙'에 제동이 걸렸다. 농림부 농지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통사찰이 사찰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한 농지법시행규칙이 법제처의 입법심사에서 제외된 채 15일 되돌아 왔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법제처 농림담당 한장리 법제관은 "농림부가 상정한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지법과 법리상 상충돼 시행규칙으로 입법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지법시행규칙의 모법(母法)인 농지법에 전통사찰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된 상황에서 시행규칙을 통해 소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농지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전통사찰의 농지소유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이로써 조계종의 숙원인 전통사찰의 농지소유 노력은 한 걸음으로 돌아간 셈. 조계종은 국회의원회장의 유관단체들을 통해 국회의원의 '농지법 개정'을 다시 시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조계종 인사 '오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등 조계종 인사 18명 39명이 18일 김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미국방문 성과를 설명한 뒤 조계종이 설립자총기운을 적극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월주스님은 김대통령에게 "문화대통령이 되 달라"며 "모든 종교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종교회관을 정부차원에서 짓는 것이 예뻐"고 제의했다. 간담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성초총무원장 조계종 교무원장 임도스님, 포교원장 성태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서문각 이사장 등 불교계 인사 39명이 참가했다.

김대통령-조계종 인사 '오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등 조계종 인사 18명 39명이 18일 김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미국방문 성과를 설명한 뒤 조계종이 설립자총기운을 적극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월주스님은 김대통령에게 "문화대통령이 되 달라"며 "모든 종교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종교회관을 정부차원에서 짓는 것이 예뻐"고 제의했다. 간담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성초총무원장 조계종 교무원장 임도스님, 포교원장 성태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서문각 이사장 등 불교계 인사 39명이 참가했다.

평불협·진각종·영산제보존회 등 방북추진 신계사 복원등 북포교 '초석'

교계 통일운동단체를 비롯 태고종, 진각종, 대한불교신안인연합회 등이 앞다퉈 북한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문이 방북이 민간차원 북한방문의 신호탄이 됐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평불협은 18일 종단법당에서 '금강산 문화유적 복원추진위원회' 창립발표를 갖고, 98년 상반기 중에 신계사 현장 답사를 위해 대표단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장은 법당 광불협 회장, 성초 진각종 총무원장, 김중서 전 덕성여대 총장, 김도현 전 문화재단연구부장이며 신계사 복원에 10여명이 투입된다. 또 평불협은 15일 조선불교도연맹으로부터 '7월 15일 북한에서 조국통일기원합동법회를 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메시지를 받고 조별련에 초청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진각종은 이달말 2명의 대표단을 북경에 파견, 조별련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방북일정 및 교류사업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고종 영산제보존회는 9월17일경 북한에서 개최 예정인 '문이상문학제'에서의 영산제 시연을 제외하고 4~5명선에서 방북을 추진 중이다.
 동국대총학생회도 17일부터 금강산 유적답사와 북한 대학 생활과의 교류에 대한 재학생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민족화합발전추진위원회도 여러 통로를 통해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pds@buddhapia.com)

통일소 북송 현장기

20면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신문은 미래불교의 주인공 새싹들을 키우기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캠프를 열었다. 사찰과 용인 에버랜드의 자연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신을 길러주는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는 새싹들에게 유익하고 신나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불자임이 자랑스럽고 함께 있음이 즐거운 어린이 연합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용인 에버랜드 · 사찰에서 2박3일
 ○일 정: 1998년 7월23일(목)~25일(토) (2박3일)
 ○장 소: 용주사 신복사 옥야박물관 외우정사 경주사 백령사 에버랜드
 ○대상: 초등학교 1~6년 (3백명 선착순)
 ○특 징: △불교문화유적 답사 △에버랜드서 속삭이는사슴 · 수영장 개리비안베이션 · 야생아이마진 관광 △불교그래피에이션 · 야생저녁 예술 · 향선, 불교교리 공부 △T셔츠 기념품 선물 제공
 ○참가비: 5만원
 ○문의: 현대불교신문 ((02)732-1523; 722-4162)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후원: 조계종 포교원 · 진각종 총무원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협찬: 불교조각원 · 현대포도덕선 · (사)한국불교교육복지선도회

불교문화 체험기행

7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에서는 온 5월을 맞아 3사 순례와 더불어 자신의 입장을 짓고 선업장기를 발원하는 재의식인 예수제 발제가 열리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대웅전에서 바라보는 공해한 일출로 유명한 동명낙가사, 현재 국보 심의중인 할아버지 불인재 있는 푸타산 상화사, 적멸보궁으로 유명한 장신 정암사 등을 함께하며 '모래시계' 촬영지로 알려진 경주진 해맞이도 합니다.
7월 "운운월 3사 순례로 무량공덕을"
'삼화사 · 동명낙가사 · 정암사'
 ○출 발: 7월 11일(토) 밤10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 비: 4만원(아침 · 점심 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해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산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해초여행사
 협찬: 일약약품

김중서박사 '불교와 교육' 강연회

△주제: 21세기를 대위한 불교교육
 △일시: 6월30일 오후2시 △장소: 갈상사 (02)3672-5945
 ※이날 김중서박사(서울대명예교수 · 前 교육개혁위원회)의 저서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가 출간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 한국불교언론학회 · 우리는선우 · 갈상사

결 · 의 · 문

전남 순천시 송주읍 소재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제 20교구 본사로 우리 조계종단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음은 공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태고종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암사를 강제 점거하고 본종에서 발령한 주지스님의 취임을 다중의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음은 물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을 선암사에 설치하는 등 법적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파행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중앙중회의원 일동은 조태분규를 다시 조장하는 태고종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 다 음 ◆
- 한국불교태고종은 선암사에 설치한 총무원을 즉각 철수하라.
 - 선암사 대중스님들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임명한 주지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인지하고 주지 취임을 방해하지 말라.
 - 한국불교태고종은 1970년의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종단 등록당시 당국에 제출한 태고종 창종 증헌과 각서의 원칙을 이행하라.
 - 문화관광부 장관은 순천시시장의 재산관리인 자격을 해임하고 그 권리를 대한불교조계종에 인계하라.
 - 지난 6월 10일 발표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과 전남 5개 교구본사 주지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
 - 총무원 집행부에 선암사 환수를 위해 종단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우리 중앙중회의원 일동 또한 집행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불기 2542 ('98)년 6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중회의원 일동